현장과 시각

예산이 없다구요?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식목일이었던 지난 5일. 4월인데도 전주의 한 건물 지하에 위치한 '문화공간 싹'(이하 싹)에 들어서자 냉기가 밀려왔다.

'싹'은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화가 채성태(35)씨가 예술인들과 함께 꾸려가는 문화공간으로, 지역 아이들의 문화 놀이터이자 채 씨의 살림집이기도 하다.

14년간 문화교육을 진행해온 채 씨는 붙박이 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지난 2005년 실내낚시터 자리를 인수, 문화공간으로 꾸몄다. 전기공사 등을 모두 직접 한 채 씨는 공간 한켠에 침대를 들여놓고 이곳에서 먹고 잔다. 지금도 이렇게 썰렁한데, 겨울엔 정말 힘들었겠다고 하자 채씨는 "무지무지 추워 혼났다"며 웃었다.

채씨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지치지도 않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였다. 지역 문화계를 취재하면서 귀가 따갑게 들었던 이야기가 "예산이 없다"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그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돈 안드는 프로그램'과 사명감에 자신의 능력을 내놓는 예술가들 덕분이라고 했다.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도, 공모 사업의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도 교육이 지속되려면 자생력이 중요한데 이 두가지가 바로 키워드라는 설명이었다.

물론 '싹' 역시 전북도의 지원을 받고 프로젝트 공모에 당선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싹'의 밑바닥을 떠받치고 있는 건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굴러가는 프로그램들이다.

채씨 등 예술인들은 늘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기꺼운 마음으로 봉사에 나선다. 수요자였던 일본인 이주여성도 자국 문화를 알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문화강사로 나서는 등 봉사 참여자의 폭도 넓어졌다.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를 만나기 어렵다. 단체들은 언제나 '돈'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단체가 사업비를 따내지 못하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매년 각종 기금과 프로젝트의 사업비 분배가 시작되는 3월전까지는 변변한 프로그램이 없다. 겨울방학이야말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말이다.

물론, 지역 예술인들과 단체 모두에게 채 씨처럼 활동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지금보다 한걸음만 더 나아가면 어떨까.

우리 지역에도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소박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단체와 예술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들의 성과가 차곡차곡 쌓일 때,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려는 사람들의 참여도 조금씩 늘어날 것 같기 때문이다. /mekim@kwangju.co.kr

이건희 회장 등 10여명 사법처리

삼성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검찰 재수사 없을 것"

삼성그룹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6일 의혹 관련자 가운데 기소 대상자를 선별해 공소장·불기소장 작성 등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마무리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한남동 특검사무실 건물 6층 기자실에서 이건희 회장의 사법처리 내용 등을 포함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윤정석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실을 들러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 시점이 확정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등 4건의 고소·고발 사건과 차명계좌 및 차명주식 등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 그룹 전략기획실 일부 관계자, 계열사 일부 임원 등 1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버랜드 사건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는 배임 혐의가,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조원대의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혐의가 각각 관련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화재에서 고객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된 회사 임원 일부도 횡령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정·관계 및 법조계를 대상으로 한 불법로비 의혹은 혐의 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등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특검보는 "고소·고발 사건은 특검에서 마무리를 하고 검찰로 넘어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앙일보의 위장계열분리 의혹 등 특검법상 명시돼 있지 않은 '기타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법의 두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여러가지 의혹도 아마 수사결과 발표에 다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대부분 의혹에 대해 특검팀의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밝힐 방침임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교황 베네딕토 16세(오른쪽)가 15일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부시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황 베네딕토 16세 첫 방미

가톨릭 사제 성추문 사과…부시 대통령 공항 영접

전세계 10억 가톨릭 인구의 지도자인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15일 즉위 후 첫 미국 방문에 나서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에 대해 사과했다.

베네딕토 교황은 이날 오후 4시(현지 시각) 워싱턴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조지 부시 대통령과 부인 로라 여사의 영접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엿새간의 미국 방문 일정에 들어간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국가원수나 외빈을 공항까지 나가 직접 맞이하기는 처음이다.

베네딕토 교황은 16일 오전 백악관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뒤 백악관 집무실에서 부시 대통령과 회담하고, 백악관 남쪽 뜰에서부터 펜실베이니아 거리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며 퍼레이드를 펼친다.

백악관 환영식에는 부시 대통령 임기 중 가장 많은 인파인 1만2천여명이 참석하며, 저녁에는 교황의 81세 생일을 축하하는 백악관 만찬이 열리지만 교황은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채 미국 내 주교들과의 기도회를 갖는다.

교황은 17일 워싱턴 시내 내셔널 파크 야구장에서 4만6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군중 미사를 집전하며 오후에는 미국 내 타종교 지도자들과 종교간 대화를 개최한다. 이어 18일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본부에서 연설하며 20일엔 9·11테러의 현장인 그라운드 제로를 방문하고 양키스 타디움에서 대미사를 집전하는 것으로 5박6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감한다.

알리탈리아항공 특별기편으로 로마를 떠나 워싱턴으로 향한 교황은 기내에서 2002년 이후 터져나오기 시작한 미국 내 사제들의 아동성추행 문제를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北 플루토늄은 철저 검증 핵확산은 모니터링 집중

한-미 "감시체계 정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은 검증보다는 모니터링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16일 북한이 신고한 핵프로그램의 검증과 관련, "실질적 위협인 플루토늄은 즉각적으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겠지만 UEP와 핵협력 의혹에 대해서는 북한이 앞으로 또 다시 이 같은 시도를 하는 것을 막는 감시체계를 정비하는데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과거 북한의 UEP 추진 여부와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은 분명히 검증돼야 하며 앞으로도 북한에 지속적으로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없다고 잡아떼는 사안을 검증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등도 8일 북·미 싱가포르 잠정합의안에 부정적인 의회 인사들을 상대로 '시리아 핵시설은 파괴됐으니 북한이 추가로 핵확산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UEP 추진과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북측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관련 전문가를 평양에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라크 4개 도시 연쇄 테러 70여명 사망

이라크의 주요 네 개 도시에서 15일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 70명 가량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들이 발생했다고 현지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라크 경찰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현지 시각) 북부 디얄라주(州) 주도인 바쿠바시(市) 시청사에 인접한 식당 앞 거리에서 폭탄을 실은 차량이 폭발, 최소한 53명이 숨지고 90여명이 부상했다고 BBC뉴스가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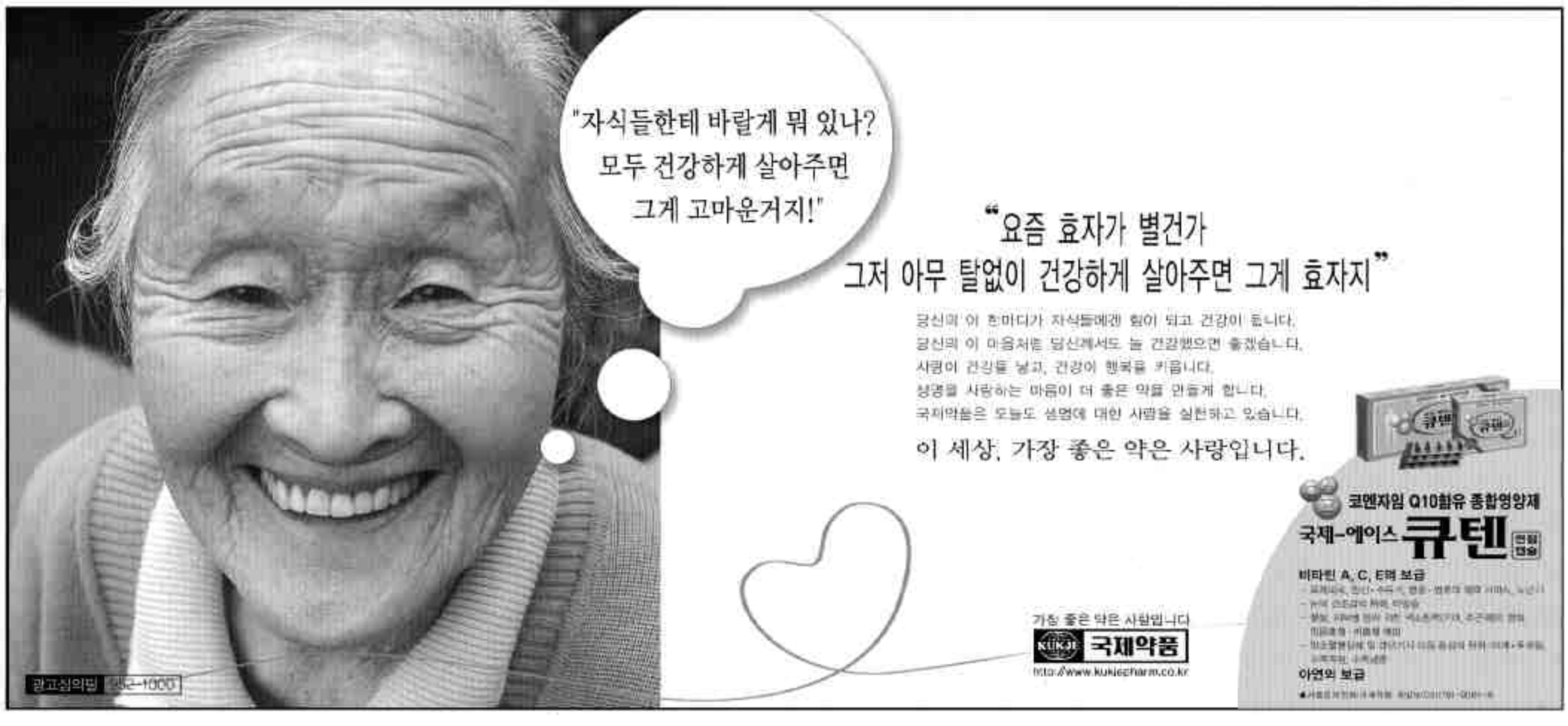
또 바그다드에서 서쪽으로 110km 떨어진 중부 안바르 주도인 라마디의 한 케밥 식당 앞에서도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 적어도 13명이 목숨을 잃고 14명이 다쳤다. 폭탄 테러는 북부 니나와 주도인 모술과 수도 바그다드에서도 발생, 모술에서 12명의 민간인이 부상을 입었으며 바그다드에서는 1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 이날 잇따른 폭탄 테러는 알카에다 조직의 영향을 받은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층 비하 발언 불구 오바마 지지율 상승

펜실베니아·인디애나주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선두주자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지지율이 '노동자 계층 비하' 발언에도 불구하고 펜실베이니아와 인디애나 주에서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15일 나왔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0~14일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는 22일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치러질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오바마 의원의 지지율은 46%대 41%로 이전 조사에서 두 자릿수였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6일 프라이머리를 앞둔 인디애나 주의 경우 이전 조사에서는 힐러리가 우세를 보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오바마가 40%대 35%로 힐러리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프라이머리가 치러지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오바마가 힐러리에 13%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서 14일 발표된 '서베이 USA'의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오바마를 1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퀴니피액대가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힐러리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오바마를 50%대 44%로 앞선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펜실베이니아와 인디애나 주는 미국의 과거 제조업 중심지를 일컫는 '러스트 벨트'에 위치한 주들로 힐러리 의원의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계층이 많은 지역이다. /연합뉴스